

학업수행 부진에 부모빈곤이 미치는 영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Self-Regulated Study Performance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Poverty on School Performance

이경혜(Kyung-Hye Lee)¹⁾

김정일(Jeongil Kim)²⁾

ABSTRACT

This study addressed ways in which parental poverty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hild school performance and how these relationships may be mediated by self-regulated study performance. Data of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KELS : 2005) were used in this survey of 6,908 students in 150 schools. Parental poverty status, self-regulated study performance, and school performance achievement were administered when children were in 7th grade.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self-regulated study performance is a mediator of the linkage between poverty and school performance. Thus, children's positive self-regulated study performance acts to buffer the negative cycle of poverty.

Key Words : 부모빈곤(parental poverty), 자기주도적 학습(self-regulated study), 학업수행(school performance), 매개효과(mediator effect).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세계아동빈곤율은 여전히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Statistics Canada, 2007), 우리나라 역시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있

으나 2003년 이후 ‘상대아동빈곤율’은 연평균 10.63%로 오히려 IMF 관리시기 때보다 0.35% 증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특히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3.4%로 OECD 국가 평균(11.2%)보다 2.2%나 더 높은 실정이며(2006년 전국가구기준), 18세 미만 아동 100명 중 9명은

¹⁾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²⁾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ung-Hye Lee, Jilyang, Gyeongsan, Gyeongbuk, Daegu University, 712-714, Korea
E-mail : kyunglee@hotmail.com

“절대빈곤”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빈곤이라는 위험요인은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공격성 행동장애, 높은 충동성과 우울성, 10대 임신, 실업, 성인기 범죄 및 세대간 빈곤전이와 같은 장기적 악영향을 가져오는 잠재적 요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김진이, 2009; 이경혜, 2004; 최선희, 2004; 이현주, 2007; 홍순혜 · 이숙영, 2009; Chao & Willms, 2003; Conger, McLoyd, Wallace et al., 2002; Entwisle & Alexander, 1999; Fantuzzo, Grim, Mordell et al., 2001; Holland, Reynolds, & Weller, 2007; McLanahan, Astone, & Marks, 1991; Olson, Ceballo, & Park, 2003; Sampson & Laub, 1994).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엄청난 수의 빈곤아동들은 상당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가진 채 자라나고 있다고 간주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비단 최근에 거론된 사실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은 학업성취도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 중의 하나이며(김현주 · 이병훈, 2007; 구인회, 2003; 신원영 · 강현아, 2008; 윤현선, 2006), 빈곤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67%로 비빈곤아동의 3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선희, 2004). 또한 빈곤가정의 아동은 인지적 발달 면에서 지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민호 · 배내운 · 이금섭 등, 2004; Duncan, Brooks-Gunn, & Klebanow, 1994; Zill & Schoenborn, 1990), 기억력, 어휘력, 수학능력, 작문능력에서 결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혁, 2006; Alwin & Thornton, 1984; Costeff & Kulikowski, 1996; Fetler, 1989; Hurtig, 1999; Kennedy, Jung, & Orlando, 1986; Patterson, 1982; Robertson, 1998).

종단적 연구의 경우 역시 초기 빈곤아동은 후

기 학업성취도를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Conger, Conger, Elder et al., 1992; Dubow & Ippolito, 1994; Entwisle & Alexander, 1992; Norman & Breznitz, 1992; Pagani, Boulterice, Vitaro, & Tremblay, 1999). 이경혜와 박아칭(2004)의 연구에서도 캐나다인 아동 2207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 2세 때의 빈곤경험은 6세 때의 낮은 학업수행을 예측한다고 밝힘으로써 빈곤의 부적영향을 보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부모의 빈곤율과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의 부진과 같은 이러한 세대간 부적영향의 위험변수를 상승시키는 매개체는 사교육비의 지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소득 최상위 10%의 사교육비는 최하위 10%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격차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통계청, 2008) 한국내 빈익빈 부익부 추세를 더욱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반드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가지는 뿌리 깊은 사회문제인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공교육제도 맥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다. 이종태(2002)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했으며, 성기선(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공교육이외에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관련되었을 경우, 일반 사교육에만 의존한 학업성취도보다 두 배나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중요

한 결정적 요인은 사교육 참여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더 많이 달려 있다는 결론과 함께 사교육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학업부진 감소를 위한 대안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 상황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보통 수준 이하’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더욱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도 ‘낮은 정도’로 분석되었다(김주후·김주아·강선우, 2006).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박현정, 2005; 최상근, 2003; Birenbaum, 2002; Mifflin, 2004; Salonen, Vauras, & Efklides, 2005; Zepke & Leach, 2002) 여전히 사교육과 자기주도형 학습능력, 빈곤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연구는 없다.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외 연구들에서 부모빈곤이 아동의 학업수행 부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부모빈곤이 아동의 학업수행 부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다음 단계는 부모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기중재변인(early intervention factor; EIF)을 밝히는 일일 것이다. 즉, ‘어떤 경로로’ 부모빈곤이 자녀의 학업수행 부진으로 전이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상관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mediator 모델을 적용한 통계적 재검증을 통하여 조기중재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 연구는 (a)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작용시켰을 때, 부모빈곤과 아동의 학업수행 간의 세대간 부적전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model 1). 또

한 (b)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통계적 검증을 거쳐 매개효과를 통한 경로(mediator effect)로 작용하는지를 입증하고자 한다(model 1-1). 본 연구에서 만약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통한 매개효과 모델이 입증된다면, 부모빈곤이 어떤 형태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수행부진을 도출시키는가에 대한 경로를 보여줄 것이다. 즉,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명백히 보여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의 학업수행 발달에 있어서의 부모빈곤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 전역에 걸쳐 수집된 국가수준의 종단조사인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KELS : 2005)¹⁾ 데이터를

1) KELS : 2005는 국가교육체제에서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때, 개인 뿐 아니라 학급, 학교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분야의 종단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생이 교육단계를 거쳐 직업세계로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총 17년 동안 교육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제 1단계는 중등교육 단계의 조사 연구로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간 매년 수행한다. 제 2단계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계로서 고등교육기간의 경험과 취업 후 직업세계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2011년에서 2019년 동안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한다. 제 3단계는 만 30세에 달하는 시점에 1회 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계는 횡단적 조사 연구이나 위계적 선형 모형(HLS)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내용과 문항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종단적 분석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용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2,929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703,914명 전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학생의 학부모를 학부모 표본으로, 표본 학생의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등 1학년 담당 교사 전원을 교사 표본으로 삼았다. 최종 추출된 학교 수는 150개 학교이며 최종 6,9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척도

1) 부모빈곤(Parental Poverty; PP)

학업수행능력 발달에 있어서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위험변인과 관련된 주요 가정적 변인들의 견지에서 저소득이 규정되었다(Bronfenbrenner & Grouter, 1983). 이외에 한국의 경우 가정빈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부담여부를 하위변인으로 하였다.

(a) 가족소득

학업수행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된 선행연구들(구인회 · 김순규, 2003; 전효정 · 이귀옥 · 박혜원, 2004; 이경혜, 2003)을 토대로 이를 하위변인으로 책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을 중류층으로 구분(예, 민하영 · 권기남, 2004)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류층 미만의 소득 계층을 저소득층이라 조작 정의되었으며 201만원 이상=1(73.4%), 200만원 이하=2(26.6%)의 분포를 보였다.

(b) 교육비 부담정도

부담정도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1(9.5%), 조금 부담이 된다=2(40.5%), 부담이 되는 편이다=3(34.4%), 그리고 매우 부담이 되는 편이다=

4(15.6%)로 나타났다.

2) 자기주도 학습능력(Self Regulated Study Performance; SRSP)

자기주도 학습태도 검사는 미국의 종단적 조사 연구인 ELS 2002의 자기조절 학습 문항과 Pintrich, Smith, Garcia와 McKeachie(1993)의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의 내용 중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한 요인 즉, 사교육비를 제외시켰을 경우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개인의 내재적인 요인을 선정하였다. 세부적인 문항의 내용으로는 자기 조절 인지(통제 기대)와 행동 통제 전략(노력과 끈기, 자원 관리)으로 자원관리영역은 시공간관리와 인적관리로 나누어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a)통제기대(4항목)는 어려워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잘 배우고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잘 못되기를 원치 않는 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b)노력과 끈기는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경우에 해당되었다. (c)시공간적인 자원관리(6항목)는 학생 스스로 시간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줄 알며 학습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도 잘 활용할 줄 아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d)인적 자원관리는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모르는 학습문제가 있을 경우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혹은 도움을 청할 친구를 찾아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 항목들은 4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점수화되었다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그리고 4=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세부항목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학업수행(Child School Performance; CSP)
 학생 개개인의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영역에 근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3단계에 걸쳐 총 17년 동안 교육 조사 연구를 수행할 계획선 상에 있는 국가 수준의 종단 조사(KELS : 2005)로 현재 유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체육중학교와 분교를 제외한 전국 2,929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3단계 층화군집추출법(three 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 전국을 도시 규모에 따라 네 개의 층으로 나누고, 2단계에서는 각 층으로부터 층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군집(cluster)인 150개의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추출된 학교로부터 50명씩 동일한 규모의 표본 학생을 추출하였다. 이 때 각 층에서 학교 추출과 각 학교에서 학생 추출은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각 층에서 무작위로 학교 표본을 추출한 뒤에는 추출된 학교 표본의 분포가 전국의 시·도교육청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추출된 학교의 설립 유형, 학교유형 등이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학생 표본의 성별 분포, 상·중·하로 구분된 학업 성적 분포와 가정환경 분포가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는지 않는지를 점검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Vers.11과 Amos 4.0 program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가 행해졌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es)이 행해졌다.

III 결과분석

1. 부모빈곤과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그리고 학업수행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1) 제 1단계 : model 1의 구조적 관계분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변인들의 요인분석 후 부모빈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그리고 학생의 학업수행의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느끼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정도와 자녀의 학업에 있어서의 노력과 끈기 및 인적 자원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빈곤(PP)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는 총가구 소득과 교육비 부담정도를 사용하였고²⁾, 자기주도적 학습능력(SSP)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는 통제기대, 노력과 끈기, 시공간적인 자원관리, 그리고 인적 자원관리 변인을 사용

2)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으로 설정한 부모빈곤(PP)과 측정변인들(총가구소득과 교육비 부담정도)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간의 요인계수는 LAMBDA X 매트릭스와 LAMBDA Y 매트릭스로 산출하였다. 잠재변인과 각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인계수와 그것의 양호도를 보여주는 지수들의 산출결과에서 측정변인들은 0에 가까운 숫자가 없이 모두 각 잠재변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함에 있어 양호하다는 것은 각 변인들의 측정오차변량, 중다상관자승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결정계수, 그리고 고정지수(T-Value)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각 변인들의 출력된 고정지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그 모형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 요인계수를 1.000으로 고정시킨 한 변인을 제외한 변인은 높은 수치(36.239)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하는 변인은 없었다.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학업수행(CSP)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는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능력을 사용하였다.

PP, SSP, 그리고 CSP 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계 그리고 PP와 CSP사이의 상호관계를 검증하고 모델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Amos 4.0 software가 사용되었다(Arbuckle, 2003). Exogenous와 endogenous 변인들 간의 가정된 경로분석과 인과관계는 path coefficients로부터 측정되어졌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각 경로에 대한 standardized estimates에 따라 CSP에 대한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결과는 <모델 1>과 같다.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영향에 대하여 SSP가 투입되어졌다. 분석결과 PP는 유의미하게 SSP(parameter estimate=-.13)와 CSP에 관련되었다(parameter estimate=-.19). 그리고 SSP는 유의미하게 CSP(parameter estimate=.30)에 관련되었다. 모델내의 모든 하위변인들 간의 parameter estimates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PP는 CSP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SSP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CSP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분석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PP를 설명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총가구소득 -.95, 교육비부담정도 .22로서 PP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총가구소득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SP의 하위요인 중 통제기대 .68, 노력과 끈기 .69, 시공간적 자원관리 .78, 인적 자원관리 .62를 나타냄으로서 SSP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시공간적인 자원관리로 나타났다. 그리고 CSP의 하위요인 중 국어능력 .77, 영어능력 .87, 수학능력 .80의 요인부하량을 보임으로서 CSP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영어능력으로 나타났다.

모델 적합도 지수에 따르면, p값이 .00이므로

완벽한 적합도에 대한 가설검증(test of perfect fit)에 대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χ^2 검증에서 영가설이 기각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론모형이 전집자료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χ^2 검증에서 영가설은 기각되므로, 영가설이 기각되어도 이론모형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χ^2 검증결과를 중요시 하지 않는 이유는 χ^2 값이 모형 적합도 뿐만 아니라 표본 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TLI와 CFI, 그리고 RMSEA를 선택하였다. 부모빈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수행능력 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⁴⁾를 살펴본 결과 Tucker-Lewis Index(TLI)=.98; comparative fit index(CFI)=.98;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0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2) 2단계 : 매개효과 검증(모델검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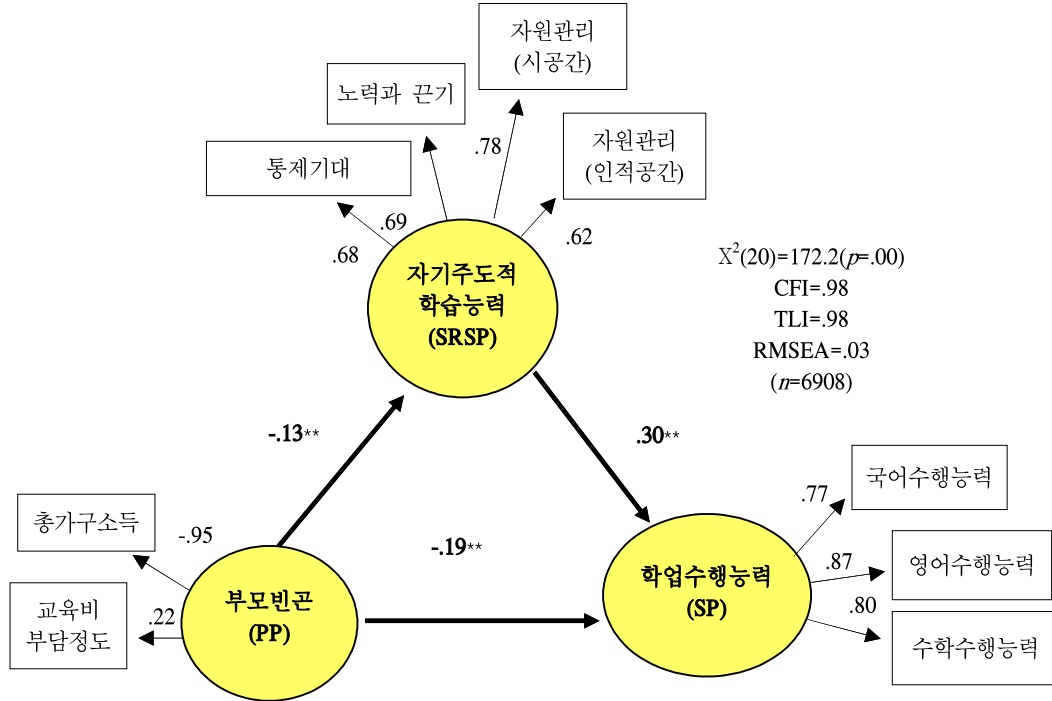
모델 1의 결과에서 모든 parameter estimates가 유의미한 .001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제 2단계 검증이 이루어졌다.

Mediator 모형의 정의에 따르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path c),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path a),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사이(path b)의 zero-order correlation은 반드시 유의

3) 홍세희(2000) 참고

4) 적합도 지수의 자세한 설명은 이사라와 박성연(2001) 또는 홍세희(2000)을 참고. CFI와 TLI가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모델 1



*all of the path coefficients are significant beyond the $p<.001$ level.

<그림 1> PP, SRSP, 그리고 CSP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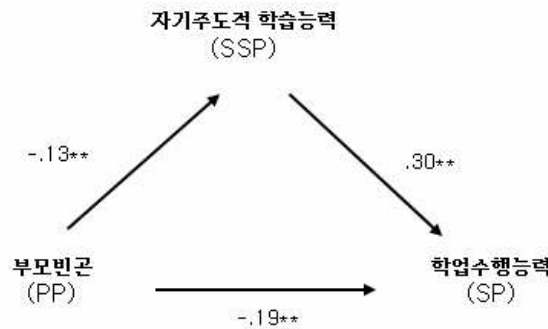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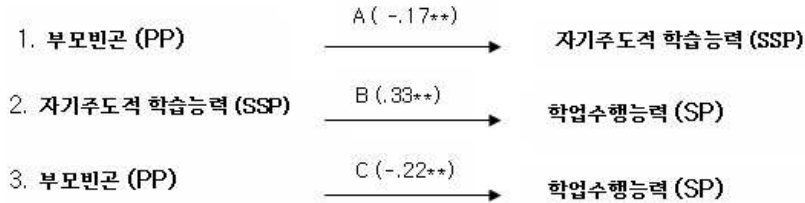
미하게 나타나야만 한다. 더욱이 모델 속에 매개변인을 투입시켰을 때, path a와 path b는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반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path c)는 경감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러한 통계연구법 3절차에 따라 regression analyses가 행해졌다. <모델검증 1-1>에서 보여지듯이, path a, b, c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SP가 방정식 속에 투입되었을 때, PP와 CSP 사이의 관계치는 -.22로부터 -.19로 감소되었다. 이로써 PP와 SSP 그리고 PB와 CSP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PP와 CSP사이의 관계와 관련할 때 매개변인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단, 모델 속에 매개변인을 투입시켰을 때, path a와 path b는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반면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path c)의 유의미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졌을 때 완전매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22로부터 -.19로 감소되는데 그쳤으므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빈곤과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빈곤과 자녀의 낮은 학업수행능력 사이의 세대간 부적영향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 부모빈곤은 아동의 학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모델 검증 1-1



Note. the final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mediation model.
 ** $p < .001$ level.

<그림 2> 모델 1에 대한 부분매개효과 검증결과

적 학습능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교육비의 엄청난 지출과 심리적 압박감은, 이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빈곤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더 빠른 대안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두게 만든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교육은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빈곤과 관련된 정책기획이나 국가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인 내적환경요인인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이에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 진보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왜냐하면 연구들이 빈곤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와 영향에 있어서 조기중재변인을

투입하여 그 파생되는 악결과를 줄이려는 효율적인 전략들을 분석하기 보다는, “전쟁” 그 자체에만 모든 힘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즉, 빈곤아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문제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실업률 같은 것에 초점을 두는 대신, 사회문제와 학교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둔다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국가적으로도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 더 ‘비용이 배가되는’ 그리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뒤늦은 정책에서 기인하는 손실을 분명히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빈곤아동의 방치는 실업, 범죄, 복지수요 등 지속적인 사회비용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3·4세 유아에 대한 투자는 사후적 대책보다 7배가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인 Perry Study(Schweinhart,

2003)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정책 분석가나 교육정책가들,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수준의 인적 자원 개발 정책수립가들에게 학습 부적응아와 빈곤아동의 귀결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왜 우리는 이러한 귀결점들을 미리 막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줌과 동시에 하나의 해결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정의적 교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고안 및 적용에서 어떠한 요인 및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이 교육의 모토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이 학습의 주인이 된다고 하여 누구의 도움이나 조연도 없이 혼자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자기관리, 자기모니터링과 같은 메타인지적 과정의 응용, 교사의 적절한 개입, 또래집단과의 팀티칭 등과 같이 그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이미 PISA와 같은 국제 연구에서도 보여지듯이 보통 수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5). 물론 우리나라 입시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따른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공·사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두 변인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업관련 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및 효용성도 함께 고려해서 분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부모빈곤과 자녀의 학업수행 부진 간의 관계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적 역할 측면에서 접근하려 했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 부진을 폭넓게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은 빈곤아동의 학업부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추후노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시기에 대한 데이터의 부재에서, 초기 삶에서 일어나는 빈곤이 후기에 일어나는 빈곤보다 더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과(예를 들면, 영아기동안의 빈곤 vs 취학 전 vs 후기 학령기), 지속력의 효과(예를 들면, 지속적인 빈곤 대 일시적 빈곤)를 밝히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는 추후 종단적 자료에서 보완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29.
- 구인회·김순규(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 김광혁(2006).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4), 265-289.
- 김주후·김주아·강선우(2006).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설명 변인 및 유형화 분석. *교육방법연구*, 18(2), 221-238.
- 김진이(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위험변인과 부정적 부모역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28, 7-42.
-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

- 학, 30(1), 125-148.
- 노충래(2008). 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족위탁 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238-264.
- 민하영 ·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3.
- 박현정(2005).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습전략의 사용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한국교육*, 32(1), 203-222.
- 성기선(2003). 서울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관련 개인 변인 탐색. *한국교육*, 30(3), 185-208.
- 신원영 · 강현아(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전효정 · 이귀옥 · 박혜원(2004).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 환경적 영향의 특수성; 중국 조선족 아동의 가정 환경에 따른 단어발달에서 어머니 언어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5(5), 163-178.
- 이경혜(2003). Predicting child school performance by mother's pre-childbearing level of education : implications for an intergenerational cycle. *아동학회지*, 24(1), 99-109.
- 이경혜(2004). The effect of poverty and parental behavior for predicting high level physical aggression. *아동학회지*, 25(5), 1-9.
- 이경혜 · 박아칭(2004). The effect of parental poverty at toddlerhood in predicting child school performance. *교육심리연구*, 18(4), 293-306.
- 이민호 · 배내윤 · 이금섭 · 최기창 · 이미란(2004). 경제적 빈곤이 아동 학교생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 행동장애 연구*, 20, 311-334.
- 이사라 ·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종태(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주(2007). 저소득 조손가족 아동의 성인아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 수용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7-32.
- 최상근(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19.
- 최선희(2004). 서울 저소득층 밀집지역 조사결과. 제 49회 국정과제회의.
- 윤현선(2006).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 사회적 자본이론과 가족매개모델의 비교 검증. *청소년학연구*, 13(3), 107-135.
- 한국보건사회부 정책연구 보고서(2007). *한국의 아동 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 방안*.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홍순혜 · 이숙영(200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아동방임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137-167.
- Arbuckle, J. L. (2003). *Amos 4.0 user's guide*. Chicago : Smallwaters Corp.
- Alwin, D. F., & Thomson, A. (1984). Family origins and the schooling process : Early versus late influence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 784-802.
- Baron, K., & Kenny, G.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renbaum, M. (2002). Assessing self-directed active learning in primary schools. *Assessment in Education*, 9(1), 119-138.
- Bronfenbrenner, U., & Crouter, A. C. (1983).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W. Kessen(Ed.), P.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1. History, theory, and methods(pp.357-414)*. New York : Wiley.

- Chao, R. K., & Willms, J. D. (2003). The effects of parenting practices on children's outcomes. *In Dans J & J. D. Willms(Eds.), Vulnerable children : findings from Canada's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nd Youth*. Edmonton, AB : University of Alberta Press.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Jr. G. H.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G. J. Duncan & J. Brooks-Gunn(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pp.288-310)*.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Jr. G. H., Frederick O.L., Ronald L. S., & Les B. W. A. (1992).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McLoyd, V. C.,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Costeff, H., & Kulikowski, Z. (1996). The developmental profile of disadvantaged six-year-old children.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62*, 45-53.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w,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Entwisle, D. R., & Alexander, K. L. (1999). Summer setback : Race, poverty, school composition, and mathematics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American Psychological Review, 57*, 72-84.
- Fantuzzo, J. F., Grim, S., Mordell, M., McDermott, P. A., Miller, L., & Coolahan, K. (2001).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revised Connor's Teacher Rating Scale with low-income, urba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2), 141-152.
- Fetler, M. (1989). School dropout rates, academic performance, size, and poverty : Correlates of educational reform.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 109-116.
- Holland, J., Reynolds, T., & Weller, S. (2007). Transitions, networks and communities :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Studies, 10*(1), 97-116.
- Kennedy, M., Jung, R., & Orlando, M. (1986). *Poverty, achievement and distribution of compensatory education services*. Washington, DC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 McLanahan, S. S., Astone, N. M., & Marks. N. F. (1991). The role of mother-only families in reproducing poverty.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pp. 51-7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311-346.
- Mifflin, B. (2004). Adult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based learning. Deconstructing the connection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9*, 43-53.
- Norman, G., & Breznitz, Z. (1992).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concentrate in first-grade Israeli pupils of low and high socio-economic statu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 5-17.
- Pagani, L. S., Boulerice, B., Vitaro, F., & Tremblay, R. E. (1999). Effects of poverty on academic failure and delinquency in boys : A change and process model approa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8), 1209-1219.
- Pe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 Castalia.
- Robertson, K. L. (1998). Phonological awareness and

- reading achievement of children from differing socio-economic status background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58(8A), 3066.
- Salonen, P., Vauras, M., & Efklides, A. (2005). Social interaction-what can it tell us about metacognition and coregulation in learning? *European Psychologist*, 10, 199-208.
- Sampson, R. J.,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 A new look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Schweinhart, L. J. (2003). Benefits, costs, and explanation of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Zepke, N., & Leach, L. (2002). Contextualized meaning making one way of rethinking experiential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24(2), 205-217.
- Zill, N., & Schoenborn, C. (1990). *Health of our nation's children : Developmental, learning and emotional problems, United States, 1988*. Advanced data, number 190. Hyattsville, MD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32.

2009년 4월 18일 투고, 2009년 7월 2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